

## 나무 이름표 스토리텔링

여러개의 나무 조각들 중에 유난히 하얗고 동그란 네가 마음에 들어 선뜻 너를 데려왔어.  
루페를 들고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보지 못했던 너의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졌단다.  
작은 숨구멍 같은것들이 보였는데,  
이걸 보며 네가 지금은 마치 물건처럼 내 손에 있지만  
한 때 넌 숨쉬고 자라던 생명이었다는것이 느껴졌단다.  
그리고 동그랗고 섬세하게 퍼져나가던 나이트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꼈지. 덕분에 네 나이드도 궁금해졌고.  
나이트와 숨구멍이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마치 우주처럼 느껴졌어.  
수많은 별들과 행성의 궤도가 네 안에 담겨 있는것처럼 느껴졌거든.  
또 네 표면에는 너를 자를 때 썼던 톱자국들이 거칠고 차갑게 나있었어.  
너를 사포질 할 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론 너의 모습이 바뀌는게 아쉽기도 했어.  
우주같은 모습이 사라질까봐.

한참을 문질러 네 표면이 보들보들 해질 즈음.  
갈고 난 가루들을 병에 담아야 했는데,  
가루들이 사포 사이로 촘촘히 들어가 별로 모이지 않았어.  
그렇지만 가루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유리병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어.  
마치 커커이 퇴적된 땅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신비로웠거든.

사포질이 된 너를 루페로 보았는데,  
숨구멍들은 나무로 매꾸어져 있었고 톱이 지나간 자국은 흐릿하게 얹어져 있었어.  
전처럼 우주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듯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낄 수 있었지.

네게 나의 상징을 그려 넣고,  
그 위에 양초를 문질러 촛불에 데워 코팅할 때 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변해갈까 몹시 궁금했어.  
초에 가까이 가져가도 너는 한동안 변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네 겉면이 촉촉히 젖어드는게 보였어.  
촉촉하게 녹은 양초는 다시 네 안으로 스미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반들반들 하면서 단단한 느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단다.

너를 만난 과정을 글로 쓰는 이순간에 알게된 것인데 말야.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듯 경험을 기록하니  
너의 다양한 변화를 매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다는걸 발견하게 되었어.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긴것 같아 가슴이 따듯해져.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너지만,  
내가 너와 관계 맺는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네.  
의미 있는 경험을 선물해줘서 고마워.